

“폭염 사전 대비해야”

도의회 예결특위, 2018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해양 폐기물 대책 마련·재난 안전 준비 철저 등 요청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다.

11일,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결산심사에서 박용근 위원(장수, 무소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한 그늘막 시설 등이 햇빛을 가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폭염피해 예방 대책이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자료 검토 결과 국비 송금이 지연되어 연말에 사업이 추진되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문제가 다반사다”며, “부처에서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비를 조기에 교부받고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했다.

김희수 위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배스크류에 폐그물이 걸려 어선이 전북되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주시하며, “폐그물 등 해양 폐기물관리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이 환경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관리 지역 내의 해양 폐기물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황영석 위원(김제1, 더불어민주당)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시 운영되어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도의 재난 안전에 대한 준비 의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대표, 민주평화당)은 “환경녹지국의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에서 공사업체가 계약사항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소송 대응과 공사 시행 시 여러 돌발 상황 등을 염두해 두고 빈틈없는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고창2, 더불어민주당)은 “고창 소각시설지원사업이 주민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교부된 국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고창군에만 민원해결 및 절차 이행사항을 미루지 말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영일 위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산림 개발, 수종갱신 목적으로 수십 헥타르의 나무들이 면도하듯 잘려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림 개발, 수종갱신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들은 남겨두고 선택적으로 감벌될 수 있도록 도가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희호 여사 별세, 그가 남긴 유언은?

“하늘나라에서 민족의 평화통일 위해 기도”

“노벨평화상 상금 DJ기념사업 기금으로 써달라”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 당부
“국민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삶 살기를 바라”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각각 김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기념사업 기금으로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11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여사의 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지난해 준비한 유언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여사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유언을 받들어 변호사 입회하여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유언 집행에 대한 책임은 제게 맡겼다. 그리

고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김대중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도록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경우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벨평화상 상금의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 사용 계획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평화, 빈곤 퇴치 등 세 가지가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도서관의 목적”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평화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해서도 평생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사의 장례는 유족,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에 따라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이란 명칭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차려졌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조문을 받는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가 열린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다.

김 위원장은 장례 일정과 관련해 “오늘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해서 14일 오전 6시에 발인 행사를 갖지 않

고 영안실에서 운구를 해서 오전 7시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진행한다”며 “1시간 동안의 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동교동 사저를 한번 둘러보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조문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보훈처 의장대 주관하에 진행하고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장례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 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여사님은 병(病)으로 소천하신 것이 아니고 노환으로 가셨다. 만 97세에 노환으로 장기가 둔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의식이 없었거나 안에 걸렸다가 하는 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은 한번도 의식을 잃어 본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눈 감고 계신다. 가 병문안을 오면 당당히 맞이해주셨다”며 “임종 때도 모든 가족들이 모여 찬송하는데 입으로 살짝씩 따라 부르셔서 가족들이 놀랐다.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다가 편하게 소천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하고 김대중평화센터의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뉴시스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성경찬 · 문승우 도의원
“지역 체육 이끌기 위해
시설물 관리 필요해”

스포츠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과 문승우 의원(군산4)은 10일 국회 본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민석 문화관광체육위원회장과 전국 엘리트 체육인 출신 지방의원이 함께한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성경찬 도의원은 “체육업계를 위해 서라도 현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보다 체육 전문 기관이 이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은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면서 민간 회장이 눈치 보지 않고 지역 체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산업위기지역 조선업체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정부, 시행령 심의·의결
모든 국가·지방 공무원
성(性)인지 교육 의무화

산업위기지역을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실직자 고용안정 및 기업 운전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이들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조선산업 장기 불황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이나 고

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깎아줄 수 있게 됐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40억3000만원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일하되 ±5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10시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별영향평가 업무 또는 성인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